

애브비 소식

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GWP '2015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3회 연속 수상

October 22, 2015

-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직원 자긍심 고취, 직원 참여, 여성-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에서 좋은 평가
- 내부 직원 대상 기업 문화 만족도 조사 결과 꾸준히 향상되고 높은 점수 얻어

2015년 10월 22일, 서울-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흥기)가 GWP Korea(Great Workplace Korea)에서 주관한 '2015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은 3년 연속 수상했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제약 기업 중 유일하게 두 가지 시상 부문을 2회 연속 대상 수상했다.

한국애브비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원들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애브비만의 일하는 방식인 '애브비웨이'를 근간으로 직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직원 개발 및 성장, 나눔,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기업문화 노력의 일환으로 JUMP(Joyful UI&Motivated workPlace)'를 출범했고, 회사 지원을 기반으로 직원간 소통과 교육, 나눔, 혁신 등의 직원 커미티들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뉴스레터 발간과 기업 문화 아이디어를 제안-실행하는 'I'm 通通(통통)', 회사와 업무, 각 브랜드 관련 혁신을 이끄는 프로세스와 행동을 일깨우는 'I'm Innovation',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 의지를 모아 사회공헌과 직원 봉사를 실천하는 '띠순', 직원의 자기 계발과 성장 발전 관련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러닝' 커미티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애브비의 자랑 중 하나인 여성-가족친화 기업문화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녀양육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돋기 위한 '탄력적 근무 제도'와 임신, 출산 직원들을 위한 '엄마의 방' 마련, 출산 전후 90일 임금 100% 지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은 '패밀리 데이'로 지정, 오후 4시 조기퇴근을 장려해 가족과 일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과 자녀 초청해 과학놀이와 요리를 만드는 '패밀리사이언스 데이'와 '패밀리 쿠킹 클래스', 연말 2주 이상 재충전 휴가 등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돋기 위한 노력들이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직원봉사단과 함께 '애브비 액션 데이' 등 전직원이 우리 사회 건강 관련 소외 약자 대상 자원봉사와 나눔의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기업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4년도 애브비 전사적 기업 문화 및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조직 문화' 평가에서 만족도가 88%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원몰입도, 환자중심문화, 혁신, 윤리의식 등의 여러 부분에서 두루 긍정적인 답변들이 조사됐다.

한국애브비 유흥기 대표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일하는 가운데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 문화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근간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혁신을 기해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GWP 일하기 좋은 기업'은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제도로 1998년 포춘지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전세계 46개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기업들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한편 한국애브비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201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유니세프 '2015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GPTW의 '2015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2014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여성가족부 '2013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는 연구 기반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2013년 애보트가 두 개의 기업으로 분사되면서 설립했습니다. 당사의 미션은 전문성, 혁신적인 직원들, 혁신을 통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애브비는 자회사인 파마사이클릭스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2만 8천 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170여개 국가에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직원, 포트폴리오, 약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abbvie.com を 방문해 주십시오. 트위터 계정@abbvienews 를 팔로우하시거나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흥기)는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사무소에 약 100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애브비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abbvi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